

한복패션의 발전방향

조효숙¹ · 김선경¹

1. 서론

이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의 한복은 민족의 의식구조와 기후풍토에 알맞게 정착된 고유의상이며, 실루엣, 색채, 문양, 소재 등에서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미적 감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이후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한복의 착용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거의 대부분 일상복이 양복으로 대체되어 한복은 결혼예복 등 특수복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방화의 물결로 각국의 문화가 무차별하게 유입되면서부터, 장년층 이상은 의생활의 일부에 한복이 아직까지 자리잡고 있으나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한복의 위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은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문화체육부에서는 '한복입는 날'을 선포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일회적인 형식만의 행사보다는 지금까지 한복산업이 부진했던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한복이 우리 의생활 속의 한 분야로 정착되고 한복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한복 분야 중에서도 특히 섬유소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한복을 현대사회에 발전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 한복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미래의 한복을 예측하고, 의상 및 섬유학계에서는 한복에 관한 연구가 어떠한 경향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

다. 본고에서는 개화기 이전 및 한복에 대한 복식사 연구는 제외하고 현대한복과 관련된 연구들만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한복패션 관련 산업체의 소재관련 현황과 문제점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한복패션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한복의 고찰

1950년대 초기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우 다수가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였으나 6.25 전쟁 후 서양문화의 도입과 함께 국민 의생활에서 한복의 위치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 이후 한복이 변천되며 수용되어 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 말기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신생활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의생활에서는 활동이 편한 양복스타일이 유행됨과 동시에 한복에 있어서도 활동성에 중점을 둔 개량한복이 등장하였다. 저고리는 고름을 리본모양으로 매기도 하고 양장식 다아트를 넣기도 하며, 때로는 고름을 없애고 브로치로 대응하였다. 그밖에도 볼레로식 저고리와, 소매의 진동선을 없애고 양장의 프렌치슬리브처럼 재단한 저고리도 유행하였으며 여름용은 소매를 팔꿈치까지 자르기도 하였다. 또한 실용복이 아닌 경우에도 서양드레스에 영향을 받아 저고리길이는 짧아지고 깃은 길어지며 고대는 넓어져서, 가슴까지 노출되거나 배래와 도련에 심한 곡선형태가 유행되기도 하였다. 한복의 소재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3차 경제개발

Developing Trend of Hanbok Fashion / Hyo Sook Cho¹ and Sun Kyung Kim¹

¹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부교수,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Phone: 0342)750-5947, Fax: 0342)750-5946, e-mail: sookch@mail.kyungwon.ac.kr

¹경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에 따른 중화학공업의 발달로 섬유업계에 화학 섬유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한복에도 영향을 주어 인조공단, 코오롱양단, 테트론, 나일론 등의 화섬직물을 크게 유행시켰다. 하지만 한복의 제작형태는 아직 가내봉제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70년대 한복의 특징은 예복화, 고급화이다. 이미 1960년대 후반기부터 명절이나 모임 등을 위한 예복으로 착용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예복화된 한복은 실용성이 감소되는 반면 장식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형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긴치마로의 회귀이며 치마폭을 사선재단하여서 치마의 아래부분을 부풀려 A-line 실루엣을 나타내었다. 한복소재는 화섬직물 보다는 양단, 칠보단, 모본단, 공단, 갑사, 숙고사, 생고사, 국사와 같은 실크류가 유행되었다. 색채는 다채롭고 원색적이며 장미, 국화, 목단 등의 길상화문을 대담하고 화려하게 기계자수로 수를 놓았다. 이처럼 화려한 자수무늬 이외에도 금박, 스팅글, 아플리케 등을 이용하여 화려하게 장식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전통적인 미를 잃게 하였다. 한복의 제작 형태는 가내봉제수준에서 벗어나 전문적 한복 맞춤집이 시작되었고 백화점에 한복코너가 등장하였다.

1980년대 역시 한복의 예복화, 고급화 경향은 계속 유지되었으나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는 전 시대에 지나친 장식성으로 흘렀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차츰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창조된 점이었다. 더구나 1970년대 부터의 상학계에서 복식사 연구가 활발해진 영향으로 각 시대별 복식 형태가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고증한복이 강화되었고 궁중복식이 응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복디자인은 화려한 장식이 사라지고 점차 은은하고 소박한 분위기를 내도록 연구되었다. 치마의 폭도 줄어서 유연하고 완만한 흐름을 갖는 실루엣으로 변화되었다. 한복의 소재는 양단, 칠보단, 모본단, 공단, 갑사, 숙고사, 생고사, 국사, 모시 등이 사용되었으며, 직물자체가 지닌 질감과 색채 문양으로 단아하고 한국적인 멋을 추구하였다. 한복 제작을 위한 전문 맞춤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한복디자이너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는 복식사 연구의 강화로 한복디자이너가 여전히 복고풍을 띠며 고중에 의한 디자인이 강세를 이룬다. 바느질 기법도 옛것이 재현되어 자물림, 섶꼬짜기, 조각잇기, 파이핀 등이 유행되었다.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깃과 섶, 동정이 넓어졌으며 당의나 두루마기도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자주 볼 수 있었다. 또한 연령, 장소, 용도에 적합하게 전통적인 색채를 선택하는 등 색상상의 안목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고급 디자이너숍을 중심으로 천연염료에 의한 전통색 재현의 바람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색상 중심의 디자인 경향은 직물 원단의 퇴보를 초래하였다. 봄 가을용의 국사, 갑사, 숙고사, 향나, 겨울용의 모본단, 운문단, 여름용의 생고사, 은조사와 같은 다양한 조직의 옷감은 줄어들고 계절에 적합한 직물보다는 노방, 자미사, 명주 등의 무문직물에 색의 조화와 날염으로 멋을 내고자 하였다. 한복 제작형태는 주단점, 맞춤점이 여전히 중심이 되었지만 디자이너브랜드의 업체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최근 40여년간의 한복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한복의 디자인 분야는 기본형태는 유지하면서 시대별 요구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량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생활과 밀착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용복으로의 시도는 실패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혼례복과 같은 특수예복으로 정착되었다. 한복용 직물은 거의 발전이 없었는데, 60년대 초 화섬이 일시적으로 유행하였으나 한복의 멋을 충분히 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으며, 개화기 이후 유행한 옷감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 섬유업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복용 소재는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된다.

2000년대의 미래의 한복은 심화되는 현대사회의 다양화 추세로 볼 때 고급화 및 기성화로 양분되어 발전될 것으로 예견된다. 최고급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한복이 공예예술품의 수준까지 되도록 천연염색, 수직기, 손자수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고급화될 것이며,

동시에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의 취향에 맞도록 실용화, 기성복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한복의 연구동향

본 문헌조사는 한복에 대한 연구가 분야별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한복패션의 발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 시점으로는 한국의류학회지가 출판되기 시작하고, 한국복식학회에서 발간하는 '복식' 학회지가 창간된 1977년으로 잡았다. 70년대 중반 이후 부터는 각 대학에서 학위논문이 많이 발표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므로 1977년부터 현재까지의 학술지를 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고로 한 학회지는 한국섬유공학회지, 대한가정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복식이며, 대학에서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국내 박사 및 석사학위 논문 등으로 한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출판물 총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논문은 조사되지 않았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복식사 관련 연구는 제외하고 현대한복 관련 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간혹 누락된 논문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분야별로는 한복의 소재, 디자인, 구매 및 착용실태의 세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1. 한복의 소재

한복의 소재와 관련된 연구들을 Table 1에 연

Table 1. 한복소재 관련 연구

제 목	저 자	연 도	문 헌
정지 공기하에서의 한복의 보온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정화	1977	한국의류학회지1(1)
한복용 직물의 소재별 대전방지제 처리와 세탁후의 대전 변화량 연구	최은숙	1984	경희대석사학위논문
한복지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I)-여자용 여름 한복지-	성수광, 고재운, 권오경	1987	한국의류학회지11(3)
한복지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II)-여자용 추동 한복지-	성수광, 고재운, 권오경	1988	한국의류학회지12(2)
부인용 한복지의 굽힘특성에 관한 연구	성수광, 권오경, 이정숙	1988	대한가정학회지26(1)
부인용 한복지의 전단특성에 관한 연구	성수광, 권오경, 황지영	1988	대한가정학회지26(2)
여자 한복지의 태에 관한 연구	성수광, 권오경, 고재운	1989	한국섬유공학회지26(6)
한복재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III)-코어방적사 한복지-	성수광, 권오경	1989	한국의류학회지13(1)
우리나라 치마 저고리 소재와 색에 대한 연구	최선경	1989	국민대논문집
부인용 한복지의 표면특성에 관한 연구	성수광 외	1990	효성여대여성문제연구
여성용 한복지의 착용, 손질과 관련한 특성평가	남상우	1990	중앙대가정문화논총
한복지의 소비성능에 관한 연구	성수광, 권오경, 황지영	1991	한국의류학회지15(2)
한복지의 착용성능에 관한 연구 -구김회복율 및 드레이프성을 중심으로-	권오경, 성수광	1991	한국섬유공학회지28(4)
여자한복의 열차단 효과에 관한 연구(I)-인체착용 실험-	성수광	1991	한국섬유공학회지28(9)
여자한복의 열차단 효과에 관한 연구(II)-써멀마네킹에 의한 실험-	성수광	1991	한국섬유공학회지28(10)
한복재료의 견뢰도 및 착용감에 관한 연구	나의숙	1994	경희대박사학위논문
시판한복지의 열, 수분이동 특성	성수광, 성은정, 권오경, 권현선	1996	한국의류학회지20(6)
남자한복의 열차단 효과에 관한 연구(I)-인체 착용 실험-	성수광, 안명자	1997	한국섬유공학회지34(4)
남자한복의 열차단 효과에 관한 연구(II)-써멀마네킹 실험-	성수광	1997	한국섬유공학회지34(5)

도별로 정리하였다. 총 19편의 연구중 학회지에 14편, 석박사 학위논문 2편, 대학학술지에 3편이 발표되었다.

한복소재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된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80년대 후반들어 주로 성수광 등에 의해 한복지의 물성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복지의 역학적 특성, 굽힘특성, 전단특성 등을 고찰하여 의복착용시의 변형거동, 태, 드레이프성, 구김성 등의 착용성능을 연구하였으며, 소비과학적 측면에서 소비성능, 세탁에 의한 물성변화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여자한복과 남자한복의 열차단 효과를 소

재 및 한복의 형태와 연관하여 연구하였으며 서양복 등과 비교 고찰하였다. 한복지에 대한 쾌적감 평가, 우수한 성능의 한복 설계를 위하여 시판 한복지를 계절별, 소재별로 분류하고 구조적 특성과 열적 특성 및 수분이동 특성 간의 상관성, 열, 수분이동 특성을 고찰하였다. 한복소재 관련 연구는 대부분 시판 한복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3.2. 한복의 디자인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복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소재에 비하여 매우 광범위하고 다

Table 2. 한복의 디자인 관련 연구

제 목	저 자	연도	문 헌
버선의 연구(I)	손경자	1978	복식 2
한국 남자 저고리 제작에 관한 연구	박금래	1978	충북대논문집
한국 남자 바지의 제작에 관한 연구	박금래	1979	충북대논문집
저고리의 모형 및 형태변천에 관한 연구	박유신	1981	기전여전논문집
한복지와 그 문양에 관한 연구-문직물에 대하여-	유지현, 한명숙	1983	대한가정학회지21(3)
한복용 걸치마 조끼허리 원형 연구 -저고리 길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야지, 김수원, 권영숙	1984	부산대연구
한복용 속치마 조끼허리 원형 연구	김야지, 김수원, 권영숙	1984	부산대연구
버선 구성을 위한 원형 연구	홍돈희	1984	배재대논문집
한복의 황금비 분석에 의한 연구	김영자	1984	복식 8
현대한복에 대한 연구-여자한복을 중심으로-	서명자	1985	홍익대석사학위논문
한복 버선에 관한 연구 -버선 원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명옥, 김야지	1985	한국의류학회지9(2)
한복의 디자인 연구 -1967년 부터 1985년 까지의 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강혜경	1986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한복의 특징에 대한 문헌 고찰	이남희	1986	한성대논문집10
우리나라 여자 저고리 원형설계에 관한 실험적 연구	원영숙	1986	부산대박사학위논문
한복 저고리 깃의 인간공학적 연구	김희정	1986	조선대석사학위논문
한국 전통직물의 섬유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민길자	1987	한양대박사학위논문
컴퓨터에 의한 한복 여자저고리 원형제도의 기초연구	소황옥	1987	대한가정학회지25(2)
현대 한복 디자인의 분석적 고찰	어윤숙	1988	청주대석사학위논문
컴퓨터에 의한 한복 여자두루마기 원형제도에 관한 연구	김희숙	1988	한국의류학회지12(3)
컴퓨터에 의한 한복 여자 마고자 원형제도의 기초 연구	홍정민	1988	효성여대논문집36
한국 여성 복식제도의 변천과정 연구	남윤숙	1989	세종대박사학위논문
한복의 현황 및 예술화의 전망	이선영	1989	효성여대석사학위논문
한복의 전통적 특성	홍명화	1989	장안실전논문총9호
컴퓨터에 의한 한복 남자 바지원형의 자동제도에 관한 연구	권미정	1989	한국의류학회지13(2)

Table 2. Continued

제 목	저 자	연도	문 헌
한복 개량운동에 관한 고찰-여성복을 중심으로-	홍나영	1990	복식 15
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1950년대 이후 여자한복 중심으로-	진미희	1990	복식 15
여자 한복의 인상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강혜원, 고애란	1991	한국의류학회지15(2)
한복에 있어서 꽃을 소재로 한 조형적 표현 연구	권오금	1992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광복 전후의 여자한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20년부터 1969년까지-	김연선	1992	국민대석사학위논문
여성잡지에 나타난 한복의 사회적 의미변화에 관한 연구	황선진	1992	복식 18
한복의 표준치수 설정을 위한 연구	박현정	1992	서울대석사학위논문
여자 버선 원형 설계를 위한 실험적 연구(I)	권영숙	1992	복식 18
컴퓨터를 이용한 여자 저고리 원형의 Grading 및 자동 제도	염영란, 조효순	1992	복식 18
CAD System을 이용한 한복의 기성복 설계에 관한 연구(I) -여아 색동저고리 및 치마를 중심으로-	조영아	1992	복식 19
컴퓨터에 의한 남자 한복 두루마기 원형제도	이수정	1992	경상대논문집
한복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남성 일상복을 중심으로-	이태욱	1993	건국대석사학위논문
한복에 장식된 문양에 관한 연구 -80년대-현재까지 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하덕순	1993	성신여대석사학위논문
염색 한복의 문양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오혜경	1995	조선대석사학위논문
현대한복지와 기모노직물에 응용된 전통문양의 비교연구	조수현	1995	효성여대석사학위논문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개화기 이후의 복 식을 중심으로-	황의숙	1995	세종대박사학위논문
개화기 이후 여자한복 변천에 관한 연구	김선령	1996	영남대석사학위논문
의복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이현화	1997	인하대석사학위논문

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총 42편 중 학회지에 15편, 석박사 학위논문 16편, 대학학술지에 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자들도 의류관련학과는 물론 미술, 교육, 산업관련 학과들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의복의 디자인은 그 시대의 생활양식과 문화를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복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변천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복의 디자인 관련 연구들은 시대별 한복의 디자인 변천, 한복의 생활화를 위한 디자인의 연구, 한복미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연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복의 디자인은 치마길이, 저고리 길이, 고름길이 등의 변화, 착용에 따른 신체 압박감을

줄이기 위한 시도, 활동성을 주기 위한 디자인의 변형 등 한복의 현대화 및 생활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복의 구성과 패턴에 관한 연구는 여성복에서는 저고리, 겹치마와 속치마의 조끼허리, 저고리 깃, 버선 등의 원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남성복에서는 바지와 저고리의 제작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부터는 한복의 패턴 제작에 컴퓨터가 도입된 연구가 시작되었다. 패션산업에서의 컴퓨터의 도입은 pattern making, grading, marking, cutting 등에 활용되어 패턴제작의 정확성은 물론 생산시간을 단축시켜 품질의 고급화와 생산단가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컴퓨터 및 CAD를 활용한 연구로는 여자 두루마기, 마고자, 저고리 및 남자 바지, 두

루마기의 원형제도, 여아의 색동저고리와 치마의 설계를 연구한 논문이 있다. 한복의 제작이 거의 주문제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제도의 연구는 한복의 기성복화에 기여하여 원가절감을 가능하게 하므로 한복의 보급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한복지에 나타난 색과 문양의 연구는 시대별 배경이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니 만큼 문양의 변천과정이나 형태의 연구는 한복 고유의 특성 표현은 물론 다른 나라 의복과의 차별화 시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한복지에 주

로 사용되는 문양은 식물무늬, 동물무늬, 길상을 나타내는 무늬, 기하학적 무늬, 자연무늬 등이 있으며, 색과 무늬들은 형태별로 권위나 계급, 번영, 장수, 부귀영화 등을 상징하였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 문양은 상징적인 의미 보다는 패션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옛날의 고유 문양을 재현함과 동시에 현대인의 미적요구에 적합하도록 변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3.3. 한복의 구매 및 착용실태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분야의 연구는

Table 3. 한복 구매 및 착용실태 관련 연구

제 목	저 자	연도	문 헌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황춘섭	1977	복식창간
정지 공기하에서의 한복의 보온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최정화	1977	한국의류학회지1(1)
한복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	장석향	1978	복식 2
한복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심리학적 의복 연구 -서울의 성인여성을 중심으로-	강혜원	1979	대한가정학회지17(3)
우리나라 한복지 제조업의 Marketing에 관한 연구	박종오	1979	고려대석사학위논문
가치관과 의복의 만족도, 과시성, 유행 및 한복에 관한 연구 -대구지방의 여대생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김광경	1982	대한가정학회지20(2)
한복에 대한 태도 및 착용변인에 관한 연구	정혜경	1982	부산대석사학위논문
한복의 구매행동 및 구매요인에 관한 분석 연구 -서울시내 거주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최영미, 조효숙	1987	복식 13
한복 치마허리의 압력과 치마허리 치수에 따른 생리기능의 변화에 관한 연구	유희숙	1988	전북대논문집
한복 치마허리 치수가 인체의 압력과 심폐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전숙	1989	한국의류학회지13(2)
여자 한복의 의복압에 관한 연구	김진영	1989	효성여대논문집
한복 치마허리의 압력에 관한 연구	류희숙, 이전숙	1989	한국의류학회지13(2)
한복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구매용도와 한복점 선택 행동을 중심으로-	최은정	1992	서울여대석사학위논문
여자 한복의 착용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진주지역을 중심으로-	정덕숙	1992	경상대논문집
여대생의 한복에 대한 인식 및 착용에 관한 연구	심화진	1993	성신여대생활문화연구
우리나라 영부인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공식석상에서의 한복을 중심으로-	박수경	1994	이화여대연구논집
중국 조선족의 한복착용에 관한 연구	김순심	1995	서원대응용과학연구
한복 착용시의 부위별 열저항에 관한 연구	송명건	1996	한국의류학회지20(4)
한복의 대중화에 따른 당면과제	안영랑	1996	경상대논문집
한복 직물업체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 관한 연구	전양진, 조효숙, 홍나영	1997	복식 34
한국 도시여성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 -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정인희, 최선형, 강순제	1997	복식 35

연도별로 한복에 대한 의식이나 착용실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총 21편의 논문 중 학회지에 11편, 석박사학위논문 3편, 대학학술지에 7편이 발표되었다.

1977년, 1987년, 1997년의 10년을 단위로 한 한복에 대한 착용실태와 구매, 의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옷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한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활동이 불편하며 세탁이나 관리가 번거롭고 신체에 압박을 주는 것 등이 일상복으로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복의 착용은 거의가 명절이나 예복에 한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복의 구입은 주로 맞춤에 의존하고 있으며 착용 년수도 평균 5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한복의 선택시는 옷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한복 착용의사는 비교적 많으나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착용을 확대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을 착용했을 때의 압력은 의복의 하중이 걸리는 부위에서 느끼게 된다. 의복 착용으로 가해지는 인체의 압력이 적절한 경우는 쾌적감을 느끼나 적정한도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면 활동에 지장을 주며 생리기능에 장애를 줄 수 있다. 여자 한복의 경우는 의복의 하중이 인체에 걸리는 부위가 양복과는 다르며 특히 치마의 경우는 인체가 의복을 받쳐주지 못하는 흉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압박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생리기능의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복의 착용 위생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복의 구성상 착용시 인체에 압박을 강하게 주게되는 부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한복 치마허리의 압력은 흉부에 가해지는 압박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물론 심폐기능에도 영향을 주므로 이러한 연구는 한복 치마의 디자인을 개량하여 쾌적한 착용상태를 유지하게 하여 한복의 이용을 확대시키는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한복은 양복과는 달리 착용시 인체와 의복간의 여유가 많으므로 열저항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합기량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4. 한복산업 현황

서구문화의 도입과 산업화 경향으로 인해 우리의 고유의상인 한복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류산업의 한 부분인 한복산업은 그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 1993년 현재 의류제조업 시장의 규모는 6조435억원이나, 이 중 맞춤한복 시장은 15억원, 한복기성복 시장은 17억원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체 의류시장 중 한복시장의 점유율은 0.05%에 불과하다. 이러한 한복시장의 낮은 점유율은 나아가 한복산업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었다. 한복에 대한 소비감소는 산업화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변화가 주요한 원인이나, 이와 더불어 한복업체의 생산 및 경영방식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복제작업체 및 한복소재업체의 현황 중 주로 한복소재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한복 제작업체

한복업체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 한복맞춤점, 주단점, 디자이너 의상실, 혼수전문점으로 분류된다. 먼저 한복맞춤점은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등 재래시장의 포목점이나 주단점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한복을 제작해 주는 소규모 업체로, 주문제작이 주를 이룬다. 주단점은 주로 직물의 도, 소매를 중심으로 하며, 봉제공을 두거나 하청을 주는 형태로 한복제작을 한다. 디자이너 의상실은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품질 좋은 고가의 한복을 주문 제작하는 업체이다. 이곳에서는 한복전문 디자이너가 독창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제작하며 한복 디자인의 유행과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혼수전문점은 근래에 나타난 유통형태로 혼수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이다. 혼수품의 일부인 예복용 한복도 주문 제작하여 주는데, 쇼핑시간이 부족한 요즘의 소비자들에게 혼례용 한복을 비롯한 혼수제품 전반에 대한 일괄 쇼핑 및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점차 고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한복 제작업체 수는 8,102개이며 유형별로는 주단점이 4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으로는 한복맞춤점이 41.5%로 나타났다. 혼수전문점은 전체의 11.9%로 주단점이나 한복맞춤점에 비하여 그 비율이 낮았으며, 디자이너 의상실은 서울 등 대도시에만 소수가 있을 뿐이나 최근 2-3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복 제작업체의 평균 종업원 수는 3명 정도라는 한복제작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함을 나타낸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는데 그 이유는 한복의 경우 여성 소비자가 주를 이루고 있어, 디자이너 및 봉제공이 주로 여성인 때문이다. 업무별로는 디자이너의 비율은 13%에 불과하여 디자인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고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소비자의 다양한 디자인 요구에 부응하려면 한복 디자이너 교육에 대한 학계와 업계의 관심이 요청된다.

130개의 한복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경영상 애로점으로는 Table 4에서와 같이 자금부족을 제외하고는, 원단의 좋은 디자인 결여가 많이 지적되어 전체 응답 중 30.8%를 차지하였으며 원단의 품질이 13.1%, 원단의 가격이 7.7%로, 전체의 51.6%가 원단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이는 한복직물의 디자인 기술이 제작업자의 요구만큼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한복 디자인은 특히 직물디자인이 추가 되는 만큼 섬유와 직물디자인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위의 한복 제작업체들의 원단제조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염색·나염 등의 가공부품이 가장 많아 전체 불만내용의 44.9%를 차지했으며 제작상태에 대한 불만은 26.4%로 나타났다. 이렇듯 염색, 나염 등의 가공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은, 염색, 나염 등이 한복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이며 품질의 고급 정도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Table 5).

Table 4. 한복 제작업체의 경영상의 애로사항

경영 애로사항	업체 수(%)
자금부족	41 (31.5)
좋은 디자인(염색, 나염) 결여	40 (30.8)
원단의 품질	17 (13.1)
원단의 가격	10 (7.7)
숙련된 봉제인력의 부족	22 (16.9)

Table 5. 원단 및 원단 제조업체에 대한 불만사항 (중복응답)

원단에 대한 불만사항	업체 수(%)
염색·나염 등의 가공	80 (44.9)
원단의 제작상태	47 (26.4)
납기기한을 못지킴	8 (4.5)
가격이 비쌌	43 (24.2)

한복 제작업체가 생각하는 한복업계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복착용에 대한 국민운동이 가장 많아 전체 응답의 30.2%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새로운 소재개발(27.4%), 광고/홍보활동(18.1%), 디자인 개발(13.5%) 순으로 나타났다. 한복 제작업체에서는 산업화와 서구화 경향으로 인해 매우 위축된 한복수요의 증대를 위해서는 정부나 범국민 차원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재개발을 들었는데 실용적 소재개발 측면이 한복의 디자인 개발보다 우세한 점은 한복에서는 소재의 특성이 유행에 민감하며, 디자인 선의 변화는 양장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4.2. 한복 소재업체

한복의 소재업체에는 직물 제직업체, 염색 가공업체, 직물 나염업체 그리고 자수 및 금박업체 등이 있다. 이들을 사업의 유형별로 구분하면 순수 제직만 하는 업체도 있고 제직과 염색 가공을 같이 하는 업체도 있으며 원단에 나염을 하거나 자수를 놓고 금박을 찍는 일만을 맡아 하는 지극히 소규모적인 업체도 많이 있다. 한복용 직물 생산업체는 전통적으로 경상남도 진주와 충청남도 공주에 밀집되어 있다. 견직물 생산업체는 주

Table 6. 한복업계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 (중복응답)

한복 활성화의 과제	업체 수(%)
한복착용의 범국민운동	137 (30.2)
소재 개발	124 (27.4)
광고/홍보활동	82 (18.1)
디자인 개발	61 (13.5)
대학에서의 한복디자이너 양성	32 (7.1)
양장지를 한복디자인에 사용	10 (2.2)
한복지를 양장디자인에 사용	7 (1.5)

로 진주의 상평공단에 있으며, 합성섬유로 된 양단이나 감사, 숙고사, 생고사와 같은 화섬직물들을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공주 주변의 유구 지방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또한 사철 깨끼라 부르는 노방, 은조사, 모시와 같은 직물들은 공주와 진주에서도 소량 생산되나 대구지역에서도 양장용과 함께 일부 생산되고 있다. 그 밖에 서울, 부산, 광주, 경인 지역에도 몇 개의 소규모 업체들이 있으나 그 생산량은 미미한 실정이며 오히려 서울, 부산,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는 자수, 나염, 금박과 같은 이차 가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

Table 7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한복 소재업체의 수는 '94년에 155개, '95년에는 139개로 1년 사이에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매출액도 '95년은 1,436억원으로 '94년의 1,448억원에 비해 1% 정도 감소하였다. 사업체 수와 매출액의 감소는 주로 한복에 대한 소비자 수요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업체 수의 감소율에 비해 매출액에서의 감소율이 더 낮은 것은 생산시설의 현대화에 따른 소재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생산액의 측면에서는 '95년도에 1,464억원으로 나타나 '94년의 1,427억원에 비하여 3% 정도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총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총매출액이 감소한 현상은 경기부진과 한복수요의 감소로 인한

재고물량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4년과 '95년의 생산에 따른 부가가치액은 각각 692억원과 760억원으로 나타나, '94년 대비 '95년의 부가가치액의 증가율은 10%에 달한다. 이는 한복직물의 생산시 소요되는 원료구입비용에 비해 고용비용과 경상지출액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한복 소재업체의 생산설비 가동률은 56.7%로서 이는 섬유산업연합회 1996년도 업체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조사된 최저가동률 적정선인 79.1%에 비하여 저조한 실정이다.

한복 소재업체 4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기술개발의 형태는 회사자체 연구가 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외부 연구소 위탁이 13.3%, 대학과의 공동연구가 6.7%, 해외기술 도입은 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사 자체의 소규모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는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으로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 다양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물 기술자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복 소재중 견직물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진주지역의 19개의 견직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직물생산의 당면한 기술상의 문제점으로는 7개사가 염색건뢰도 불량, 불균염성, 탈색, 염색 재현성 저하 등에 대한 애로를 지적하였으며, 제직기술에 대해 애로를 느끼는 업체는 6개사로 주로 직기의 노후화 및 기능공의 기술이 숙련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원단불량 등을 예로 들었다. 또, 가공기술의 애로점으로는 주로 수지가공, 방추가공, 샌드가공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을 5개사가 지적하였으며, 기타 신제품 개발이 어렵다는 업체가 1개사로 조

Table 7. 한복 소재생산업체의 주요 생산 및 고용 지표

지표내용 (단위)	연도		
	'94년	'95년*	증가율(%)
사업체 수(개)	155	139	-10.3
총매출액 ¹⁾ (백만원)	144,842	143,651	-0.8
총생산액 ²⁾ (백만원)	142,759	146,444	-2.6
부가가치액 ³⁾ (백만원)	69,260	76,053	+9.8
연간투자액 ⁴⁾ (백만원)	10,113	10,468	+3.5
투자액/매출액(%)	7.0	7.3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내부자료(93-95년도 기준)

¹⁾총매출액 = 제품출하액 + 부산물판매수입 + 임가공수입액 + 수리수입액

²⁾총생산액 = 연간매출액 + (연말완 · 반제품재고액 - 연초완 · 반제품재고액)

³⁾부가가치액 = 급여 + 퇴직금 + 복리후생비 + 임차료 + 감가상각비 + 세금공과금 + 대손상각비 + 기타비용

⁴⁾연간투자액 = 연간취득액 - 전설가계정증감액

* '95년 수치는 추정치임.

Table 8. 진주 견직업체의 당면 애로 기술

당면 애로기술	업체 수(%)
염색기술 향상(건뢰도, 균염, 탈색, 재현성)	7 (36.8)
제직기술향상(원단불량)	6 (31.6)
가공기술 향상(수지가공, 방추가공, 샌드가공)	5 (26.3)
기 타 (신제품 개발)	1 (5.3)
계	19 (100)

사되었다. 결과적으로 염색 및 가공기술에 애로를 느끼는 업체가 전체의 약 63%에 해당하는 것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이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염색, 가공기술의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잠산업이 몰락한 이 시점에서 견직산업이 살아갈 길은 염색가공에 대한 기술축적이 견직산업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물리치고 선진 외국제품과 동등한 대열에 설 수 있는 지름길이라 판단된다.

Table 9는 한복 소재업체의 중점 연구개발 분야를 나타낸 것으로, 품질 향상이 37.7%로 가장 많았고, 신제품/상품개발이 32.8%, 디자인/style 개발이 24.6%, 생산공정의 개선은 4.9%로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일반 직물업체의 경우는, 신제품 개발이 44%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기존제품의 품질 향상이 35.3%, 디자인 개발이 12.9%, 생산공정 개선이 6.9%, 기초기술분야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교해 보면 한복 소재업체는 신제품 개발 보다는 기존제품의 품질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은 32.8%로 일반 섬유업체에 비하여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디자인 개발의 24.6%는 일반 직물업체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한복직물의 유행이 염색 및 자수, 나염 등의 가공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장 낮은 연구개발 분야는 생산공정 개선으로 나타나 공정상의 자동화 처리 등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산라인의 자동화는 고임금에 의해 발생하는 원가 상승을 방지하여 상품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요소이며 기술혁신 못지 않게 상품의 품질을 균일하게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면

Table 9. 한복 소재업체의 중점 연구개발 분야(중복 응답)

중점 연구 개발 분야	업체 수(%)
품질향상	23 (37.7)
신제품/상품개발	20 (32.8)
디자인/스타일 개발	15 (24.6)
생산공정의 개선	3 (4.9)
기타	0 (0.0)

접 조사에 의하면 일부 업체는 이미 자동화가 끝난 상태이기도 하나, 그밖에 아직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체는 영세하여 자동화에 관심이 없는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체들도 앞으로는 지속적인 생산공정 개선의 노력을 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한복패션의 발전방향

Table 10은 1977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의 한복 관련연구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전체 연구동향을 살펴본 바와 같이 한복의 연구는 복식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에 비해 구매 및 착용실태, 한복소재에 관한 것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복소재에 관한 연구는 몇 사람의 제한된 연구자들에 의해 시판 한복지를 대상으로 연구한 정도이며, 한복을 위한 신소재의 개발이나 기능향상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섬유소재 분야에 관한 전체 연구업적과 비교할 때에는 한복소재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표적인 섬유전문 학술지인 한국섬유공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는 6편 정도에 불과하다. 한복디자인 분야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우리옷인 한복을 좀 더 일상생활과 밀착시키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은 디자인에 부합되는 기능적인 소재가 개발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국내 섬유소재 분야는 지난 20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사실이나 서양복이나 산업용에 국한되었으며 이러한 기술을 한복에 응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에 따르지 못했음을 느낄 수 있다. 구매 및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20년 전이나 현재나 소비자가

Table 10. 한복관련 연구의 현황(1977년~현재)

연구분야	연구 논문의 편수
한복소재	19
한복디자인	42
한복구매 및 착용실태	21
계	82

한복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족 사항은 변한 것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서양복시장의 눈부신 성장과 비교할 때 우리 문화의 일부인 한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복을 제작하는 업체들의 애로점 조사 결과에서도 전체의 반 이상이 원단의 품질, 디자인, 가격 등 원단에 대한 문제점을 들고 있으며, 원단에 대한 불만사항으로는 45%가 염색이나 나염 등 가공상태의 불량, 26% 정도가 원단의 제작상태에 대한 불만을 지적하고 있다. 한복 디자인은 특성상 서양복에 비해 형태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직물디자인이 외관상 중요하며, 이를 좌우하는 것은 한복소재의 제작상태나 가공상태이다. 따라서 한복에서는 소재가 유행에 민감하며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한복의 활성화를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한복 제작업체나 소재업체 모두 한복의 디자인 개발 보다는 소재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한복에서 소재가 차지하는 면이 이처럼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한복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여 품질개선이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복 소재업체의 기술개발 형태는 회사자체 연구가 78%로 가장 많으며 연구소나 대학 등의 연구는 극히 일부에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신제품의 개발 보다는 다른 직물 샘플들의 모방이나 변형에 머무를 수 밖에 없어 직물의 다양성이나 디자인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현재 한복에서 사용하는 소재는 천연섬유인 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하절용으로 모시나 삼베 등이 사용되고 있고 기성품에서 합성섬유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의 신소재 섬유기술은 천연섬유를 능가하며 합섬만이 가질 수 있는 고기능, 고감성의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로 새로운 패션을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복 소재업체도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으로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 다양한 연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서양복직물에서와 같이 합성섬유를 응용하여 전통섬유와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실용성이

우수한 직물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공정도 자동화하여 고임금시대에 대비한 원가절감 및 고품질의 균일화로 상품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내용과 산업체의 당면한 현황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인 연계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한복패션의 발전을 위하여는 앞으로 산학협동 차원에서 산업체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에 착안하여 연구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복디자인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이 되는 소재개발이 필수적이며, 문양, 색채, 조직 등의 직물디자인은 전통에 뿌리를 두어 옛 멋을 살릴 수 있되, 여기에 새로운 섬유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발전시킬 때에 한복패션 산업이 새롭게 혁신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한복은 우리나라 고유의 의상으로 우리의 민족적 감각이 살아있으며 다른 나라 민속의상과 차별되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서구식 생활양식과 가치관에 따른 의생활의 변화로 서양복이 일상화되면서 기능적이지 못한 한복은 우리생활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다. 한복패션의 발전과 현대적 활용을 위하여는 현대인의 생활과 취향에 맞도록 우리옷의 소재, 색상, 디자인, 문양 등에 대한 다양하고도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더 많은 관심과 착용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 소재면에서의 고품질화가 급선무라 하겠다. 소재 디자인의 다양화, 세탁과 관리가 간편한 한복용 신소재의 개발, 전통의 미를 살리면서도 현대 디자인에 알맞는 색상과 문양의 개발 등 한복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소재개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복 소재업체의 대부분이 영세하여 신제품 개발 및 고품질화를 위한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며 더구나 무역개방 이후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견직물 제조업체가 도산할 것으로 예측되어 생산업체들이 투자나 기술개발 의지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섬유관련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구가 필요하며 한복 소재업체와의 산학 공동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의 획일화 및 하나의 생활권이 예측되는 만큼, 오히려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각국의 독특한 문화자산을 보존하는 것이 그 민족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복패션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세계화의 지름길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라 생각된다.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면서 외국에서도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복식인 한복패션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 노력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강순제 외, 한복의 생산·유통·소비실태 조사연구, 문화체육부, 1996.
2. 섬유산업 모니터링업체 실태조사 보고서('95년도 제2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5.
3. 섬유산업 모니터링업체 실태조사 보고서('96년도 제1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6.
4. 진주지역 실크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견직물연구원, 1995.
5. 견직산업 현황과와 설문조사 결과 분석, 한국견직물연구원, 1994.
6. 광공업통계조사 내부자료, 통계청, 1983~1995년.
7. 이호정, 패션유통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1996.
8. Table 1~Table 3 문헌참조.